



# 기독일보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www.christ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24호

## 예장 합동 차기 목사부총회장 선거 레이스 돌입

### 김동관·민찬기·장봉생 목사 추천받았지만 민 목사는 자격 논란

예장 합동 차기(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3명이 각 소속 노회에서 추천을 받아 본격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다만 이들 중 한 명에 대해선 자격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 장봉생 목사 “부흥 위한 플랫폼 제공”  
서울노회는 16일 서울 중신교회에서 제105회 정기회를 갖고 장봉생 목사(다가죽서대교회)를 차기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장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생산적인 기구와 조직을 과감히 통합하고, 초고령 사회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사회적 약자를 담아낼 수 있는 전략적 그릇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회자 연금 의무화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목회자 사레비 기준안을 마련해 지역과 교회 규모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교단과 신학교 협업체를 통해 2030년 변곡점을 지나는 목

회자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단 소속 신학교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부흥운동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 모든 노회와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기도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복지운동, 학교운동 등의 전국적 캠페인을 통해 시대적 부흥의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목사는 예장 합동 군선교회장,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장, 서울노회장, 전국영남교직자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 김동관 목사 “총회의 화합과 균형 위해”  
앞서 동안주노회는 지난 8일 서울 상계제일교회에서 제200회 정기회를 갖고 김동관 목사(수원안대교회)를 역시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회 목사부총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총회가 화합과 균형을 잘 잡아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왼쪽부터) 김동관 목사, 민찬기 목사, 장봉생 목사(이상 가나다 순)

함께 돕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계 연합활동에도 힘쓰겠다”며 “장자 교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중요한 기독교 이슈와 국가적 위상이 결린 주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교단의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예장 합동 신학부장, 학생지도부장, 고시부장, 헌의부 서기, 부회록서기, 회록서기 등을

역임했다. 현재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민찬기 목사 추천받지만 입후보 자격 논란  
서울북노회도 16일 경기도 고양시 하림교회에서 개최한 정기회에서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를 만장일치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민 목사에 대해선 교단 내에서 입후보 자격 논란이 있는 상황이

다. 앞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는 동일 선출직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명시한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6항을 부총회장

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선출직 입후보 자격 기준에 대해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제105회 총회에서 이렇게 개정됐다.

그런데 다른 직책과 달리 부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부터 2회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했다. 이에 제103회와 제106회 부총회장 선거에 나섰던 민 목사의 입후보 가능 여부, 즉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제6항의 부총회장 입후보 경력 소급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 선관위가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북노회가 민 목사를 차기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사람”... ‘생명주일예배’ 성료

### 한국로잔·행동하는프로라이프 주최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마무리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와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공동주최하고 대구동신교회(담임 문대원 목사)가 주관하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 ‘한결같은 주의 생명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7시(12일 금요일은 저녁 8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동신교회 비전관 생명을 위한 특별예배’가 14일 주일에 ‘생명주일예배’를 드렸다.

이날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국제로잔운동 이사, 한국로잔위원회 법의이사)는 설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태아도 수정된 순간부터 사람이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고 했다”며 “또한 고대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의 제네바 선언에서 ‘나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

간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수정된 순간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에게는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며 “사람을 공격하는 건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단체 소개(한국로잔위원회,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특별 찬양(주는 비록 아름다우나 고향 서운화 목사), 대표 기도 등의 순서가 진행됐고, 대표 기도는 태아를 위한 기도(이봉화 상임대표), 부모의 회개 기도(이재훈 목사), 청년의 회개 기도(한국정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표)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모든 예배는 생명주일예배로 드리며 태아의 생명을 왜 보호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받는 시간이었다.

앞서 ‘고난주간 특별예배’에서 8일 김현철 목사(전 목산교회 담임, (사)프로라이프 고문)가 ‘생명주간 선포’, 9일 홍순철 박사(고려대 산부인과 교수, 한국로잔위원회 생명위원장)가 ‘낙태, 10일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교수, 기독교생명윤리학회 상임이사)가 ‘젠더 이데올로기’, 11일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대전성서화운동본부 여성위원장)가 ‘저출산의 위기’, 12일 한철호 선교사(미션파트너스 대표, 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가 ‘로잔과 생명운동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주최 측은 “보이지 않는 태중 아이들의 생명을



지난 14일 대구 동신교회에서 열린 생명주일예배 모습. ©주최 측 제공



문대원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함부로 해치는 행위가 우리 사회 안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때”라며 “올해 4화재를 맞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와 ‘생명주일예배’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 시대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36주 된 태아를 2천만 원에 낙태한 사건이 있었다. 낙태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산부인과 중상당수가 30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 수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5년 동안 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낙태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2019년 2만 6,985건 → 2020년 3만 2,063건) 헌법재판소가 낙태 상한선으로 판단한 임신 22주를 초과하는 30주 이상의 태아들을 무분별하게 낙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024년 3월 4일 세계 최초로 프랑스가 헌

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다. 이미 1975년부터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프랑스 국내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 조치가 미국과 주변 유럽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죽음의 문화에 대한 경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프랑스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가 다른 나라를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각 나라의 자신의 국가가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넣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1989년에 조직된 이래로 국내외 교회 및 다양한 복음주의 선교단체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로잔위원회와 2020년 9월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는데 뜻을 같이한 종교계, 학부모 단체, 여성 단체, 미혼모 단체 등 60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낙태법 폐지 반대와 낙태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함께 모태에서 시작되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서 한국과

세계에 복음과 함께 생명의 가치를 전하고자 매년 고난주간 다음 주에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와 ‘생명주일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교회가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올해로 4화재를 맞는 ‘생명을 위한 고난’ 특별예배를 통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 가는 가장 작은 자인 수도 없는 태아들을 생각하며,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망의 기류는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 22대 국회에서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질지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지성호 “北 자유 위해 기도... 독재정권과 계속 싸울 것” >> 3면

김남국 목사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뛰어 넘는다” >> 22면

PRUGIO

강남 20분대! 용산 10분대! 여의도 10분대!

# 서울의 중심에 살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강남생활권 일반분양 아파트

- 선착순 동 호 지정 계약 -

14, 15구역  
신통기획 확정  
및 모아타운선정

계약금 정액제  
1천만원

3천만원 상당  
옵션 무상제공

거주의무 無  
청약통장

59㎡A·B / 74㎡A / 84㎡A·B·C 총 771세대

02)575-0771

강남·용산·여의도의 가치를 모두 누리는 집!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신림선, 7호선, 9호선, 2호선

강남생활권 일반분양 아파트